

宗教 定義의 批判 (五)

哲學博士 金永羲

『宗教는 最上의 價値를 所持한 줄로 認定하는 思想들을 取得하고 維持하는 集中的 또는 聯合的 能力으로 發生되는 個人이나 團體의 經驗이다.』 --라고 『호푸딩[호프딩]』은 主張하였다. 卽 價値 保存은 宗教의 特徵的 原理일 것이다. 『宗教는 한 무슨 것이 卽時的 滿足을 주거나 或 엇더한 滿足을 出生케 하는 性質을 所持함을 意味한다.』 --라고 註釋하면서 다시 繼續하여 말하기를 『最內의 要素에 잇서 宗教는 理知的 認識과 關連되지 안코 차라리 人的 存在의 價値를 評價하는 바에 關連되었다. 宗教的 觀念이라는 것은 우리가 理解하는 限度에서 우리의 現實生活이 삶에 가장 높은 價値를 投與한다고 및는 그 對體와의 關係를 表示함이다. 卽 宗教의 心口는 宇宙에서 價値 不滅한다는 確信에서 發生한 것이다...나는 價値不滅이라는 熟語를 勢力不滅과 類同하게 쓴다. 卽이 原理는 모든 外的 變遷을 不拘하고 價値의 保存을 主張함이다.』 --라고 斷言하였다. 여기에서 『호푸딩』은 哲學上 큰 貢獻을 주었다.

宗教는 哲學보다 한거름 더 가서 사람이 宇宙에 對한 價値判斷을 가짐을 보였다. 아모 目的이나 質的 價値를 議論함이 업시 大自然의 量的 問題와 關係 畧을 研究하는 科學과 달은 範圍에 宗教生活이 잇슴을 明確히 하였다. 科學은 外延的 量的 問題를 研究하는 때 宗教는 內質的 價値를 測定하는 것을 識別하여 노았다. 卽 價値라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永久的이고 深切한 所學의 滿足과 가장 永久的인 目的의 實現을』 어둠에 잇는 것이오, 엇더한 理想이나 人的 活動에 價値가 잇든지 그 價値가 損失됨이 업시 사람의 삶의 苦悶을 擴大하게 함이 宗教의 生活일 것이다.

그러나 이 定義가 不滿한 것은 宗教를 넘으나 宗教的 感情과 同一視함이다. 價値라는 것은 한 무엇으로부터 經驗하는 歡樂과 滿足에 對한 感情일 것

뿐이겠다. 그러나 첫째로 宗教生活은 消極的 價値保存을 目的하는 것이 아니라 積極的으로 새로운 價値를 찾는 것이다. 한 社會, 한 個人이 임이 가진 善의, 美의, 眞의, 價値를 保存만 할뿐만 아니라 善의, 美의, 眞의 새로운 價値를 創作하는 目的과 活力이 잇는 것이다.